**다자이후 덴만구의 축제와 의식**

　축제는 일본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행사로서 대부분 일본의 사원이나 신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. 다자이후 덴만구에서는 매년 100개가 넘는 축제와 제사가 행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참가합니다.

　다자이후 덴만구에서 열리는 의식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진코시키(스가와라 미치자네의 대행렬)는 1853년에 제작된 두루마리에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. ‘덴진’이라고 불리는 스가와라 미치자네의 신령을 미코시(신을 태운 가마)에 태워 미치자네가 말년을 보낸 옛 저택터에 세워진 에노키샤로 옮긴 후,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다자이후 덴만구로 다시 보냅니다. 이 행사에서는 수 백 명의 사람들이 헤이안 시대(794-1185)의 의복을 입고 경내를 돌아다니는 미코시와 동행합니다.

　1월 초에 열리는 우소카에(피리새를 교환하는 축제) 또한 다자이후 덴만구의 유명한 행사입니다. 빼곡히 들어선 군중은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늦은 밤 어두컴컴한 곳에서 나무로 조각한 피리새를 서로 교환합니다. 나무로 조각한 피리새의 바닥에 쓰여진 글자에 따라 순금 피리새로 교환할 수 있으며, 내년에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
　새해가 되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다자이후 덴만구에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며,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한 부적을 찾아 이곳을 방문합니다.